

자료제공 : 2026. 5. 28.(목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
영동대로 복합개발추진단

사진 없음 ☒ 사진 있음 ☐ 쪽수: 2쪽

영동대로 복합개발추진단장	권순환	02-6438-2808
사업총괄과장	박노성	02-6438-2810
관련 누리집	-	

국토부 · 서울시 · 국가철도공단, 5.28. GTX 삼성역 보강방안 적정성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

- 국토부, 서울시, 국가철도 공단 등 관계기관 참여하여 최적의 보강방안 마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, 서울특별시(시장 권한대행 김성보) 및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직무대행 이안호)은 GTX 삼성역 구간 기동 시공오류와 관련, 최적의 보강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“보강방안 적정성 검토 용역” 착수 보고회를 5월 28일 개최한다.

□ 이번 용역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긴급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, 시공 단계별 구조해석과 보강공법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.

○ 주요 과업은 구조해석에 의한 구조 성능의 검증, 지진 등 특수 상황에서 구조 안정성 검토, 최적 기동 보강공법 도출,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

이며, 지난 전문가 현장점검(5.6~5.8)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.

- 특히, 보강공사와 열차운행의 병행 가능성과 열차 진동이 보강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 초기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검토 용역은 토목 구조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공인기관(한국콘크리트학회)에서 수행하고 있으며, 국토부, 서울시, 국가철도공단, SG레일, 코레일, 건설사 등 관계 기관이 모두 검토 과정에 참여한다.

- 향후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되며, GTX-A 노선 민자사업자인 SG레일이 운영하게 되고, 코레일이 유지보수할 예정이므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다.
-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,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 전(全)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국토부, 서울시,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필요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없도록 최적의 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- 서울시는 6월부터 약 3개월 간 현 구조물의 안정성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포함한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한다.
- 국토부, 서울시,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구조물 정밀안전점검과 금번 보강공법 검토 용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.